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남 승 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어휘 의미론과 술어의 의미 구조

최근 20여 년 간 언어학의 연구 방향은 형식 통사론 중심에서 의미론에 대한 연구로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과거 통사론에서 다루어지던 많은 현상들에 대한 의미-화용론적인 근거를 탐구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 예를 들면, 양화사 영향권 해석, 초점 해석, 조응사 해석, 부정극어의 분포-해석, 기능범주 및 부가어 의미 유형-분포 등 — 특히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주요한 연구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어휘 의미론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어휘 의미가 통사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며,

*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BK21 '국어 표준화 사업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논문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충분히 보완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주 제 어: 어휘의미론, 상, 사건구조, 논항구조, 논항교체, 다의어, 미명세
lexical semantics, aspect, event structure, argument structure, argument alternation, polysemy, underspecification

이러한 어휘 의미론적 설명이 좀 더 일반성을 확보해 준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통사 구문들이 의미상으로는 일관성 있는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휘의미론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또한, 사전학과 관련하여, 개개 어휘항목의 의미기술이 형식화된 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다. 기존 사전에서의 어휘의미 기술은 각 어휘항목 마다 적절한 직관적 술어를 사용해서 환언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의미기술은 말할 것도 없이 주관적인 기술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은유, 제유, 추상화 등의 생성적 의미 확장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사전은 어휘 항목들 사이의 통사-의미 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 밖에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의어, 반의어, 상의어, 하의어 등의 의미 관계와 사람, 사물, 식물, 액체 등의 의미 부류에 의한 논항 명사의 통사-의미기술 등에 불과하다. 물론 20세기 후반의 형식 통사론 연구와 함께, 하위범주화와 같은 어휘항목의 구문 정보와, 한 어휘가 나타날 수 있는 문맥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술어의 의미 구조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어 술어의 의미구조를 유형화하는 작업의 일부이다. 역시 의미 구조의 핵심에는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가 포함되는데, 이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표면의 격틀(caes frame)을 포함한 통사 구조를 실현시키는 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통사 구조의 상관성을 찾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술어의 논항 교체 현상을 검토하고, 통사 구조상의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를 구조적으로 기술한다.

소위 연결 이론(linking theory) 혹은 사상 이론(mapping theory)에 관한 연구는 Perlmutter(1978)의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 이후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의 대응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왔다.¹⁾ 연결 이론에 관한 연구는 논항 교체(argument alternation) 현상을 주목하게 되는데, 논항 교체란 똑같은

1) 이에 관한 주요 연구로 Grimshaw(1990), Hale and Keyser(1993), Levin and Rappaport(1995) 등이 있다.

술어가 서로 다른 통사 구문을 형성하면서 서로 다른 논항 구조를 갖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논항 교체 현상은 통사와 의미의 대응에 관한 이론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문제이다. 논항 교체는 하나의 술어가 여러 가지 격구조로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격)틀-교체(frame-altern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의 예는 영어와 한국어의 논항 교체를 보여 준다.

- (1) a. *The boat sank.*
 b. *The enemy sank the boat.*
 c. *The window broke.*
 d. *John broke the window.*
- (2) a. *Jack loaded the hay onto the truck.*
 b. *Jack loaded the truck with the hay.*
- (3) a. 근이는 돌을 쌓았다.
 b. 근이는 돌로 담을 쌓았다.
- (4) a. 진이는 벽을 까만색으로 칠했다.
 b. 진이는 까만색을 벽에 칠했다.

영어나 한국어에서 논항 교체의 유형은 적어도 수십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 현상은 영어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언어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인데, 최근의 연결 이론에서는 이들 교체 현상을 단순한 통사론적인 현상으로 기술하지 않고 어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Pustejovsky 1991, 1995; Levin and Rappaport 1996; 남승호 2002, 2003). 다시 말하면, 논항 교체 현상을 설명할 때, 개별 술어가 갖는 논항 구조만으로는 왜 하나의 논항 구조가 여러 격 구조(혹은 격틀)로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여러 술어가 이러한 논항 교체 현상을 공유할 때, 이것은 이들 술어가 공유하는 논항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특정한 의미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동일한 논항 교체를 보이는 술어가 공유하는 의미 특성이란 무

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술어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을 주목했다.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가 어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지시할 때, 이 사건이나 사태가 갖는 내부적 시간적 특성을 상적 특성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상적 특성에 따라 Vendler(1967)는 일찍이 네 가지 유형의 상적 의미(aktionsarten)를 분류하고 있으며 —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성(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 — 이 분류는 현재까지도 사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 기초가 되고 있고, 최근의 연구들은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가 가리키는 사건의 내부 구조(internal event structure)가 그 상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아래 2절에서는 의미 구조의 골격을 이루는 사건 구조의 표상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3절에서는 하나의 술어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그 의미를 구분하는 표상 방식을 제안하고, 4절에서는 사건의 구조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상적 의미를 분석하는 기준들을 논의한다.

2. 사건 구조의 형식화: 단순 사건과 복합 사건

한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사건(event)을 가리킨다는 가정 아래, 형식 논리의 체계에서 사건을 개체의 기초 영역(ontological domain)에 포함시키는 이론을 사건 의미론이라고 한다. 사건 의미론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Davidson(1967)에서부터 시작된 흐름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사건은 어떤 유형들로 나뉘며,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태(state)도 사건의 영역에

2) Jackendoff(1983, 1990)에서는 어휘의 의미 구조를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라고 부르고, 이에서 합성된 문장의 의미는 사건(event)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 구조는 사건 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Pustejovsky(1991, 1995)는 소위 생성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에서 어휘 의미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건 구조, 논항 구조, 특질 구조(qualia structure)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포함시킬 것인가(Parsons 1990; Landman 1993, 2000; Katz 2000), 사건은 상황(situation)과 어떻게 다른지, 사건들의 집합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Bach 1986)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사건 의미론의 다른 줄기는 미시적 시각에서 사건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연구들이다. 이는 Vendler(1967)의 동사 상 부류(aspectual classes)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후 Dowty(1979), Jackendoff(1983, 1990)로 이어지며, 상적 의미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부사 수식의 의미(중의성) 해석, 통사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등의 주제에 관하여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Tenny 2000, Travis 2000, Alsina 1999, Ernst 2000)

본 논문에서는 거시적 사건 의미론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미시적 사건 의미론, 즉 사건의 내부 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한국어 술어의 논항 구조와 함께 술어의 의미 유형을 형식화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1) 사건 구조 표상에 관한 기존 연구

먼저 사건 구조를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에 관한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건을 지시하는 술어들보다는 복합적인 사건을 지시하는 인과적 사건(causative event)의 표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인과적 사건은 복합 구조로 표상되어 왔다. 인과적 사건은 적어도 원인이 되는 사건(causing event)과 결과로 야기되는 사건(caused/result event)을 포함하는 복합구조를 이룬다. 그런데 기존에 제안된 표상 방식들은 대부분 원인이 되는 사건을 상위에 놓고, 그 아래에 결과 사건을 내포시킨다. 따라서 원인 사건을 외부 사건(outer event)이라 부르고, 결과 사건을 내부 사건(inner event) 혹은 핵심사건(core ev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상태 변화, 처소 변화, 형태 변화 등의 변화 개념을 내포하는 사건들도 인과적 사건에 포함시켜서 논의한다. 다음의 예들은 복합 사건 구조를 이용한 기존의 기술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13) 행위(Activity): e



(14) 완성(Accomplishment): $e_0(= \text{전이 Transition}) < \infty$



(15) 달성(Achievement) $e_0(= \text{전이}) < \infty$



우선 상태와 행위의 단순 사건은 각각 상태와 행위의 하위 사건으로만 이루어진다.⁴⁾ Pustejovsky(1991, 1995)의 사건 구조에서는 언제나 하위 사건 하나가 초점으로 부각되어 중점이 된다. 단순 사건의 경우 중점은 당연히 하나뿐인 하위 사건(상태나 과정)이 되고, 복합 사건의 경우 하위 사건들 가운데 하나에 중점이 할당된다. Pustejovsky는 완성의 복합 사건에서는 과정의 선행 하위 사건에 중점이 할당되고, 달성의 복합 사건에서는 상태의 후행 하위 사건에 중점이 할당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영어의 완성 동사 *build*는 예비 과정과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은 예비 과정에 할당된다. 그리고 달성 동사 *arrive*는 예비 과정과 결과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은 결과 상태에 할당된다. Pustejovsky의 사건 구조에서 중점은 상적 의미 해석을 위해 이용되는데, 다음 3절에서 보듯이 중점은 논항 교체에 따른 의미 전이를 설명하

4) 여기에서 위의 네 가지 사건 유형을 모두 '사건' (event)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괄시키는 것은 물론 Davidson(1967)의 사건 이론과 다르다. Davidson은 행위 문장(action sentence), 즉 움직임의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상태를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후 Parsons (1990) 등의 Neo-Davidsonian 사건 이론에서는 상태까지 사건 이론적 의미 기술에 포함하고 있으며, Bach(1986)는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뜻으로 사태류(eventu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Pustejovsky는 완성 동사 *kill*의 어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6) *kill*

사건구조 =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사건1 = e1:과정</td> <td rowspan="3"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td> </tr> <tr> <td>사건2 = e2:상태</td> </tr> <tr> <td>중점 = e1</td> </tr> </table>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상태	중점 = e1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상태								
중점 = e1								
논항구조 =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논항1 = x: [개체]</td> <td rowspan="2"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td> </tr> <tr> <td>논항2 = y:</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유정물 개체</td> <td rowspan="2"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td> </tr> <tr> <td>형상역 = 물체</td> </tr> </table> </td> </tr> </table>	논항1 = x: [개체]]	논항2 = y: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유정물 개체</td> <td rowspan="2"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td> </tr> <tr> <td>형상역 = 물체</td> </tr> </table>	유정물 개체]	형상역 = 물체
논항1 = x: [개체]]							
논항2 = y: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유정물 개체</td> <td rowspan="2"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td> </tr> <tr> <td>형상역 = 물체</td> </tr> </table>	유정물 개체]	형상역 = 물체			
유정물 개체]							
형상역 = 물체								
특질구조 =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직접사역 direct_causative-개념유형</td> <td rowspan="3"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td> </tr> <tr> <td>형상역 = 죽어_있음(e2, y)</td> </tr> <tr> <td>작인역 = 죽이는_행위(e1, x, y)</td> </tr> </table>	직접사역 direct_causative-개념유형]	형상역 = 죽어_있음(e2, y)	작인역 = 죽이는_행위(e1, x, y)			
직접사역 direct_causative-개념유형]							
형상역 = 죽어_있음(e2, y)								
작인역 = 죽이는_행위(e1, x, y)								

위의 사건 구조는 *kill*이 완성의 사건을 가리키며, 논항 구조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데 둘째 논항은 유정물임을 나타낸다. 특질 구조에서는 두 하위 사건이 어떠한 종류의 사건인지를 보여 주는데, 작인역(agentivity)에서 e1은 x가 y를 죽이는 행위로 이루어진 하위 사건임을 나타내며, 형상역(formal)에서 e2는 y가 죽어 있는 결과 상태임을 보여 준다.

3. 다의 술어의 의미 표상과 해석

1) 술어의 다의적 해석을 왜 주목하는가?

하나의 술어가 둘 이상의 격틀로 실현되면서 서로 다른 논항 구조를 가질 때 이 술어는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1절에서 영어의 *sink*, *break*, *paint*와 같은 동사들, 그리고 한국어의 ‘쌓다, 칠하다’ 동사가 논항 교체를 보이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이들 동사가 논항 교체를 통

해 보이는 의미 해석의 다의성은 그 사건 구조의 표상에서 쉽게 드러난다. 그러면, 술어의 논항 교체 현상과 사건 구조(혹은 상적 특성) 사이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가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때, 그 사건은 경우에 따라 그 내부 구조가 더 분석될 필요가 없는 단순 사건(simplex event)일 수도 있고, 내부 구조가 더 분석될 필요가 있는 복합 사건(complex event)일 수도 있다.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상 부류(aspectual classes)에 따라 그 의미 구조, 특히 사건 구조가 달리 표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건구조를 CAUSE, BECOME, DO와 같은 기초술어와 함께 도입하는 Jackendoff나 Dowty의 표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사건구조 안에 하위 사건들이 병렬적으로 내포되는 Pustejovsky(1991, 1995)의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의 술어의 의미 표상은 Jackendoff 식의 어휘 개념 구조와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Pustejovsky의 의미 구조는 Jackendoff의 개념구조 위에 덧붙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부가되는 것이 아니고, 개념구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미 내용을 구조적으로 표상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에서 의미 내용을 구조적으로 표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의 상관적 원리(interface principles)를 포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의미 구조는 어휘적 의미만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와 절에서 둘 이상의 어휘 의미가 결합하는 일반적 원리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결국 문장의 합성 의미 구조를 도출하며, 이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사이의 대응 원리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복합 사건은 내부적으로 둘 이상의 하위 사건(sub-events)을 포함하는데, 전통적인 상 분류에서 완성과 달성의 사건이 기본적으로 복합 사건을 가리킨다. 즉 하나의 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상태 변화, 위치 변화, 혹은 인과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둘 이상의 내부 사건으로 분석된다. 또한 두 하위 사건은 각각에 참여하는 논항들(event-participants)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논항 교체 현상은 해당 술어가 하나의 복합 사건을 가리킬 때 두 하위 사건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영어의 예를 먼저 다시 살펴 보자.

- (17) a. *The boat sank.*
- b. *The enemy sank the boat.*

영어의 *sink*는 상태 변화의 사건을 가리킨다. 즉 *sink*는 원인의 하위 사건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사건을 가리킨다. (17a)에서 *sink*가 자동사 구문을 형성할 때는 행위주 agent는 실현되지 않고 상태 변화를 겪는 대상만이 표면에 주어로 실현되면서, 상태 변화의 결과를 부각시킨다. 이 때 *sink*는 사건 구조의 중점(Head)이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에 할당되며, 이 하위 사건에 참여하는 논항은 대상뿐이므로 이 논항만이 표면에 실현된다. 그러나 (17b)와 같은 타동사 구문을 형성할 때는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행위주 논항도 표면에서 각각 목적어와 주어로 실현된다. 이 경우에는 *sink*가 두 개의 하위 사건들 가운데 선행하는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을 초점으로 부각시킨다. 그런데 예비과정의 하위 사건은 행위주가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이므로 두 논항이 모두 관여하게 되고, 표면에서 두 논항이 모두 실현된다.

Pustejovsky는 *sink*와 같이 소위 사동(causative)과 기동(inchoative)이라는 두 의미로 해석되는 논리적 다의어를 기술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본 의미 구조에서 둘 이상의 의미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몇 가지 생성 기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점 미명세(underspecification of Head) 방식을 이용하여 *sink*의 다의성을 기술한다. 즉 *sink*의 사건 구조에서 중점을 명세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결과 상태에 중점이 부여되거나 예비 과정에 중점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의 해석을 도출해 낸다. *sink*의 의미를 Pustejovsky(1991, 1995) 식의 의미 구조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SINK

사건구조 =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상태
 중점 = _____

논항구조 =	논항1 = x:[물체-유정물] 논항2 = y:[물체]
특질구조 =	사역 causative-개념유형 형상역 = sunk_state(e2, y): 'y가_가라앉은_상태' 작인역 = sink_act(e1, x, y): 'x가_y를_가라앉히 는_과정'

위에서 어휘 의미는 세 개의 기본 구조로 표상되는데, 먼저 사건 구조에서 과정의 사건 1과 상태의 사건 2가 제시되고 이 둘 가운데 중점이 아직 미명세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중점이 사건 1이나 사건 2에 부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항 구조는 *sink*의 사건이 두 개의 필수 논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논항이 어떤 의미역(semantic role)을 갖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논항의 의미역이 소위 '행위주' agent와 '대상' theme이라는 사실은 특질 구조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즉 특질구조의 작인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건 1(e1)인데, 이는 'x가_y를_가라앉히는_과정'이다. 따라서 사건 1에 관여하는 두 논항의 의미역은 간접적으로 행위주 (가라앉히는 행위를 가하는 논항 x)와 대상 (가라앉히는 행위의 영향을 입는 논항 y)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질 구조의 형상역은 결과 상태의 사건 2(e2)를 가리키며, 이 하위 사건은 사건1에 의해 'y가_가라앉은_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점의 미명세와 논항의 통사적 실현 사이에는 유기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명세되었던 중점이 하위 사건 2에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면 사건 2(e2)에 관여하는 논항 y만이 표면 구조에 실현되면서 자동사문을 구성하게 되고, 중점이 하위 사건1에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면 사건 1(e1)에 관여하는 두 논항이 모두 실현되면서 타동사문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사건 구조의 중점이 어느 하위 사건에 부여되는가에 따라 논항들이 표면 구조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앞으로 한국어 술어의 논항 교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제 한국어 술어의 논항 교체와 다의성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로 논의하기 전에, 앞서 보았던 한국어의 예를 하나만 살펴 보자.

- (19) a. 근이는 돌을 담 밑에 쌓았다.
 b. 근이는 (돌로) 담을 쌓았다.

한국어 타동사 ‘쌓다’는 처소 변화의 의미를 갖는 이동 동사에 속하는데,⁵⁾ 위와 같이 두 구문에 모두 나타난다. (19a)에서 ‘쌓다’는 ‘돌’의 처소 변화 사건을 가리키는데, ‘담 밑에’와 같이 돌이 쌓인 처소를 표면에 착점(Goal)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19b)에서는 처소 변화를 겪는 ‘돌’이 목적어로 실현되지 않고, 돌이 쌓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담’이 목적어로 나타난다. 물론 (19b)에서 ‘담’의 구성 재료인 ‘돌’이 표면에 나타나지만 ‘재료’의 의미역을 갖는 수의적인 성분이 된다. (19b)와 같은 문장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사건을 가리키므로 ‘쌓다’를 산출 동사(creation verb)라고 부르기도 한다.⁶⁾ 위의 두 구문을 비교해 보면 의미상의 차이가 쉽게 드러난다. 먼저 (19a)의 ‘쌓다’는 산출의 사건이라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결과물을 논항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래 (20a)는 ‘돌이 쌓여서 담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 (20) a. *근이는 돌을 담으로 쌓았다.

다음에서 보이는 대조 역시 두 구문의 의미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 (21) a. 많은 돌이 담 밑에 쌓였다.
 b.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담이 쌓였다.

5) 한국어의 이동 동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홍재성(1987)과 남승호(2000)을 참조.

6) 한국어의 산출 동사에는 ‘굽다, 꿰이다, 뚫다, 차리다’ 등이 포함되는데, 뒤에서 이러한 유형의 동사들의 다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위에서는 ‘쌓다’의 피동 형태가 쓰이고 있는데, (21a)는 이동 동사로서의 ‘쌓다’가 피동화된 경우이고, (21b)는 산출 동사로서의 ‘쌓다’가 피동화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동 동사의 목적어인 대상 논항이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21a)는 문법적이지만, 산출 동사의 목적어인 결과물 논항은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지 못한다. 이 차이는 앞으로 4절에서 살펴 보겠지만 두 구문의 사건 구조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두 구문 모두 복합 사건을 가리키지만, 산출 동사로서의 ‘쌓다’는 하위 사건 가운데 결과 사건이 중점으로 부각되는 사건을 가리키므로, 어휘적 피동화가 불가능하다.⁷⁾ 따라서 ‘쌓다’의 의미 구조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쌓다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사건2 = e2: 상태

중점 = e1(e2)

논항구조 = 논항1 = x: [물체-유정물]

논항2 = y: [물체-재료]

논항3 = z: [물체-인공물]

특질구조 = 처소변화-개념유형

형상역 = 존재함(e2, z): ‘z가_존재하는_상태’

작인역 = 쌓는_행위(e1, x, y): ‘x가_y를_쌓는_과정’

‘쌓다’의 사건 구조는 기본적으로 영어 *sink*의 의미 구조와 같으나, 중점이

7) 김윤신(2001)은 피동화의 제약으로 완성 동사의 특질 구조상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4.3과 4.6에서 다룰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코퍼스에서는 산출 동사로서의 ‘쌓다’가 피동화된 다음과 같은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i) 백성들 사이에 장벽이 쌓이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두 무리로 나뉘어 ...
그러나 (i)에서 ‘장벽’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로 전성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며, 물리적 의미일 때는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ii) ??베를린 장벽이 쌓이기 전에는 ...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e1(e2)]로 표시된 중점값은 일종의 미명세에 해당한다. 다음 절에서 중점 미명세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e1(e2)]로 미명세된 중점값은 해당 사건의 중점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중점이 하위 사건 1(e1)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중점이 두 하위 사건(e1 + e2)에 모두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⁸⁾

우선 중점이 하위 사건 1에만 부여될 경우에는, 특질 구조의 작인역에서 보듯이 'x가 y를 쌓는 과정'의 사건만이 초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e1)에 관여하는 두 논항 x와 y만이 표면 구조에 실현된다. 그러나 중점이 두 하위 사건 (e1 + e2)에 모두 부여되는 경우에는, 특질구조의 작인역과 형상역에서 보여 주듯이 (e1)과 (e2)에 관여하는 세 논항이 모두 표면 구조에 실현될 수 있다.

하나의 술어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달리 해석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i) 첫째는, 형태적으로는 하나의 술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서로 관계없는 두 개의 술어로 본다. 즉 우연히 형태가 같은 두 술어 P1과 P2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ii) 둘째는, 두 의미가 동일한 하나의 기본 의미에서 도출된다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즉 기본의미 P에서 맥락에 따라 P1이나 P2가 도출되는 방식이다. (iii) 셋째는, 두 의미 가운데 하나를 기본 의미로 설정하고 나머지 하나의 의미는 이 기본의미에서 도출한다. 즉 P1의 의미에서 맥락에 따라서 P2의 의미가 파생된다고 보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술어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면서 의미상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위의 (ii)의 방식이나 (iii)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물론 두 의미가 서로 상관성이 없거나 희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i)의 방식으로 두 쓰임을 동음이의어(homonym)로 처리한다.

그런데 본 논문은 (ii)와 같은 설명을 위해서는 미명세(underspecification) 방식을 활용하며, (iii)의 설명을 위해서는 공동 합성(co-composition)의 방식을 제안한다. 즉 P1과 P2의 의미가 실현되는 맥락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균형을 이

8) 이러한 중점 미명세 방식은 Lee et al(1998)과 남승호 (2000, 2002) 등에서 제안되어 한국어 술어의 의미론에 적용되고 있다.

루는 경우에는, 두 의미에 공통된 기본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서 어휘 의미내용의 일부를 미명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두 의미가 실현되는 맥락이 의존적이거나 불균형적일 때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실현되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보고 특별한 맥락에서만 실현되는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공동 합성에 의해 파생시킨다. 아래에서 먼저 미명세 방식에 의한 설명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공동 합성에 의한 다의적 해석을 소개한다.

2) 사건 구조의 미명세에 의한 다의어 표상

이제까지 영어의 *sink*와 한국어의 '썩다'를 통해 [사동-기동] 교체, 그리고 [처소이동-산출] 교체의 다의성을 살펴 보았다. 특히 이들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 구조의 중점을 미명세하여 표상하였다. 이제 한국어 술어가 가리키는 사건 구조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 논항 교체를 보이는 술어들을 분류하고 이들이 취하는 사건 구조를 유형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복합 사건 구조에 이용할 중점 미명세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일곱 가지(A-G)로 중점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⁹⁾

(23) 사건 구조의 중점 미명세와 그 해석

$$(A) \text{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e1 \end{array} \right]$$

9) 어휘 술어의 사건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을 남승호(2000)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i) 하위 사건은 2개를 넘지 않는다. [$1 \leq \text{length}(E) \leq 2$] (ii) 내포는 한 번만 가능하다. [$1 \leq \text{depth}(E) \leq 2$] (iii) 하위 사건은 과정(process)이나 상태(state)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A-G)에 제시된 사건 구조는 모두 과정과 상태의 하위 사건들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들이다. 그러나 복합 사건의 하위 사건이 반드시 [과정 + 상태]일 필요는 없다. 즉 [과정 + 과정], [상태 + 상태], [상태 +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사건도 있다.

- (B)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e2 \end{array} \right]$
- (C)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e1 + e2 \end{array} \right]$
- (D)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e1/e2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중점} = e1; e2$
(부분 미명세)
- (E)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phi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중점} = e1; e2; e1 + e2$
(완전 미명세)
- (F)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e1(e2)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중점} = e1; e1 + e2$
(부분 미명세)
- (G) 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1} = e1:\text{과정} \\ \text{사건2} = e2:\text{상태} \\ \text{중점} = (e1)e2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중점} e2; e1 + e2$
(부분 미명세)

우선 사건 구조 (A-B)에서 중점은 e1, e2로 명세되어 있으므로, Pustejovsky 식의 해석을 따르자면 (A)는 완성(accomplishment)의 사건, (B)는 달성(achievement)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C)는 두 하위 사건이 모두 초점화되어 중점으로 명세된 구조인데, Pustejovsky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¹⁰⁾ 나머지 사건 구조들 (D-G)는 모두 미명세가 사용된 것들이다. (D)의

10) Pustejovsky (1995:73)는 영어 동사 *give*와 *marry*의 사건 구조를 복합 사건으로 표상하고 두 하위 사건에 모두 중점을 할당하고 있다. 즉, *give*는 $[e1^* <_{\infty} e2^*]$ 로, *marry*는 $[e1^* \circ_{\infty} e2^*]$ 로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두 하위 사건에 중점

구조는 중점이 [e1/e2]로 미명세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맥락에 따라 중점이 두 하위 사건 가운데 하나로 명세되면서 해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D)는 맥락에 따라 (A)나 (B)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점 해석 방식은 영어 동사 *sink*의 다의적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Pustejovsky가 이미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 구조 (E-G)에 나와 있는 중점 미명세와 그 해석 방식은 한국어 다의 술어를 설명하기 위해 남승호 (2000)에서 새로 제안된 것인데, 중점의 미명세 방식과 그 해석을 확대한 것이다. 즉 (E)에서는 중점이 완전 미명세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e1, e2, e1 + e2. 그리고 (F)의 미명세 구조는 e1이 언제나 중점을 부여받지만 e2는 맥락에 따라 중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F)의 사건 구조를 갖는 술어는 맥락에 따라 (A)나 (C)의 사건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의 미명세 구조는 e2가 언제나 중점을 부여 받지만 e1은 맥락에 따라 중점이 될 수 있다, 즉 (G)는 (B)와 (C)의 사건 구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일곱 가지 복합 사건 구조를 정리해 보면, (A-C)는 중점이 명세된 것들이며, (E)는 중점이 완전히 미명세되어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D, F, G)는 중점이 부분적으로 미명세되어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술어의 의미 구조를 그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유형화 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점이 완전 명세되는 술어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중점이 미명세되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그 이유는 많은 한국어 술어들이 둘 이상의 구문에서 논항교체를 보이며 서로 다른 어휘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3) 공동합성에 의한 다의어 해석

술어의 체계적 다의성(systematic polysemy)을 생성적 기제로 설명하기 위해

을 할당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에서도 이 동사들의 의미 구조를 예문과 함께 상술하고 있지 않다.

서 Pustejovsky(1995)는 공동합성(co-composition)이라는 생성적 기제를 제안한다. 영어의 *bake*와 같은 동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타동사 구문에 사용된다. *bake*는 (24a)에서 상태변화 동사로 해석되며, (24b)에서는 산출 동사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Pustejovsky는 이 둘 가운데 상태변화의 의미 구조를 *bake*의 기본 의미로 기술하고, 목적어로 *cake*와 같은 인공물이 나타나는 맥락에서는 동사는 갖고 있던 의미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 구조의 변화를 공동합성이라고 부르는데, *bake*의 경우에 기본 의미가 갖고 있는 단순 사건 구조 [E = e1(과정)]가 특정한 맥락에서는 산출 동사로 해석되면서 복합 사건 구조 [E = e1(과정) + e2(상태)]로, 그리고 논항 구조가 2항-구조에서 3항-구조로 변화한다.¹¹⁾

(24) a. *John baked the potato.*

b. *John baked the cake.*

다음은 Pustejovsky(1995)가 제안한 *bake*의 기본의미 구조이다.

(25) *bake*

사건구조 = 사건1 = e1:과정

중점 = e1

논항구조 = 논항1 = x:유정물

논항2 = y:물질

특질구조 = 상태변화-개념유형(change of state)

작인역 = 굽는_과정(e1, x, y): 'x가_y를_굽는_사건'

위 기본의미의 사건 구조를 보면 단순 사건으로서 행위(activity)의 상적 의

11) 영어의 *bake*는 다음과 같이 자동사문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자동사 구문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i) *The cake baked in the oven.*

미를 보여 준다. 즉 앞의 (24a)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표상한다. 논항 구조의 논항2는 물질을 가리키는 명사가 쓰이는데, *potato*나 *fish*와 같은 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날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목적어의 상태가 변화하는 사건을 가리키므로 상태 변화 개념유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목적어로 *cake*와 같이 새로운 산출물(product)을 가리키는 명사가 나타나면, 더 이상 상태 변화의 의미는 사라지고 산출물이 새로 생겨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Pustejovsky는 *cake*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상하고, 이와 함께 동사 *bake*가 결합한 후의 의미 구조, 즉 *bake a cake*의 합성 의미 구조를 아래와 같이 보여 준다. (26)을 보면, *cake*와 같은 명사류의 의미 구조에도 논항 구조와 특질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공물인 경우 특질 구조에서 그것이 어떤 재료/모양으로 이루어지며(형상역), 어떻게 만들어지며(작인역),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기능역) 표상하고 있다.

(26) *cake*

논항구조 = 논항1 = x:음식물, 인공물
 당연논항1 = y:물질
 특질구조 = 구성역 = y
 형상역 = x
 기능역 = eat(e2, z, x)
 작인역 = bake_act(e1, w, y)

(27) *bake a cake*

사건구조 =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상태
 중점 = e1
 논항구조 = 논항1 = x:유정물
 논항2 = z:인공물
 당연논항1 = y:물질
 특질구조 = 상태변화-개념유형(change of state)

구성역 = part_of(e2, y, z): 'y가 z의_부분인_상태'

형상역 = exist(e2, z): 'z가_존재하는_상태'

기능역 = eat(e2, u, x)

작인역 = bake_act(e1, x, y): 'x가 y를_굽는_사건'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cake*의 [특질구조-작인역]에 나타난 내용이 동사 *bake*로 표시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cake*가 *bake*의 목적어로 나올 때 이 둘이 의미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 *bake*의 기본 의미 구조에서는 *bake*가 인공물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지 않지만, 인공물인 *cake*가 그 산출 방식이 *bake*라는 동사에 의해 표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 합성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두 어휘 의미 구조가 기본적인 의미 합성 과정으로는 결합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특질 구조상의 공통점으로 인해 특별한 의미 합성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8) 특질 구조 통합에 의한 함수 적용(Function Application with Qualia Unification)

α - <a, b>유형, 특질구조 [QS $_{\alpha}$...[Q $_i$ = γ]]

β - <a>유형, 특질구조 [QS $_{\beta}$...[Q $_i$ = γ]]

QS $_{\alpha}$ 와 QS $_{\beta}$ 는 두 특질구조의 최대하한가(the greatest lower bound)로 통합된다.

최대하한가(glb) = QS $_{\alpha}$ Π Q S $_{\beta}$ 이며 $\alpha(\beta)$ 는 유형이다.

공동합성은 표면상 하나 이상의 함수 적용(function application)을 허용하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의미연산으로서, 일반적인 함수-논항의 의미 결합과 다르다. 즉 일반적인 함수-논항의 의미결합에서는 논항의 의미가 함수의 의미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형식의 결합인 데 반해, 공동합성의 의미결합은 논항의 의미구조가 함수의 의미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 직관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현주 외(1999)과 이정민(2000)은 이러한 공동합성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상태변화-산출 동사의 다의성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 이동 동사 가운데 특별히 제거 동사류에 속하는 ‘지우다’와 ‘비우다’는 다음과 같이 논항 교체를 보인다.

(29) a. 진이가 칠판에서 낙서를 지웠다.

b. 진이가 칠판을 지웠다.

(30) a. 진이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비웠다.

b. 진이가 쓰레기통을 비웠다.

(29)와 (30)의 교체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유형으로 보인다. 두 경우에 모두 (a)는 처소 이동의 사건으로 해석되며, (b)는 상태 변화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9)에서 ‘칠판’과 ‘낙서’의 관계는 (30)에서 ‘쓰레기통’과 ‘쓰레기’의 관계와 유사하다. 즉 낙서가 칠판에 담겨 있다가 제거되며,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담겨 있다가 제거되는 것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관에 따라 이들 동사를 제거동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 코퍼스에서 이들 용례를 찾아 보면 이들 사이에 뚜렷한 비대칭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우다’의 경우는 3항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2항 술어로 쓰일 때는 그 목적어 논항의 명사에 의미적인 제약이 아주 높다. 이와 달리, ‘비우다’의 경우는 2항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3항 술어로 쓰일 때 그 목적어 논항 명사에 의미적인 제약이 높다.

따라서 이 둘의 의미 구조를 기술할 때, 각각 압도적으로 많이 실현되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보고 특별한 맥락에서만 실현되는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지우다’의 경우 (29a)에서와 같이 ‘제거되는 대상(낙서)’을 목적으로 취할 때 처소 이동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기술하고, 이와 달리 ‘제거되는 대상’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29b)와 같은 구문에서는 상태 변화의 의미를 공동 합성에 의해 도출해 낸다. 물론 ‘비우다’의 경우는 ‘지우다’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의미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어 술어의 상 분류 기준

이제 한국어 술어의 의미 유형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술어의 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 보자. 앞서 술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사건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때, 크게는 Vendler(1967)의 네 가지 사건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들 사건 유형을 의미 구조에 표상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방식들을 이미 2절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 있다. 아래는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상적으로 분류해 내는 기준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들을 통해 볼 때, 한국어 술어의 의미를 적절히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Vendler의 분류보다 훨씬 더 세분된 분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술어의 사건 구조를 확장하여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상적인 의미 구분을 형식화하여 명시적으로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속 부사어와의 결합

먼저 Vendler(1967), Dowty(1979) 이후 많은 상적 의미 추출에 이용되어 온 부사어 수식에 대해 알아 보자. 시간 부사어 가운데는 한국어의 ‘한 시간 동안, 하루 종일’이나 영어의 *for an hour, all day long* 등과 같이 어떤 상태나 행위과정의 지속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어의 수식이 있다. 이들 부사어는 제한된 술어와 결합하면서 수식하는데, 한국어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 (31) a. 진이는 세 시간 내내 지켜왔다.
 b. 근이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다.
 c. ??인부들은 두 달 동안 그 집을 지었다.
 d. *나는 세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위에서 보면, 지속 시간 부사어는 단순 사건인 상태 (31a)와 행위 (31b)를 수

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복합 사건인 완성 (31c)이나 달성 (31d)의 사건을 수식하는 데는 제약을 보인다. 이러한 제약은 영어나 다른 언어들에서도 확인 되는 것들이나, 다음과 같이 수식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¹²⁾ 아래의 예에서 ‘한 달 동안’, ‘한 시간 동안’은 모두 결과 상태를 수식하면서 그 지속 시간으로 해석된다.

- (32) a. 근이는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갔다. [결과상태 지속시간]
 b. 진이는 한 시간 동안 차를 멈추었다. [결과상태 지속시간]

즉 (32a)에서 ‘나가다’는 달성의 사건으로 해석되고, ‘근이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결과 상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었음을 뜻한다. (32b)에서도 ‘한 시간 동안’이 수식하는 사건은 ‘차를 멈춘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이어서, 이 결과 상태가 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31d)에서는 같은 달성 유형의 ‘도착하다’가 지속 시간 부사어에 의해 수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대조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결국 상적 의미를 표상하는 방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완성의 동사들 가운데 ‘짓다’는 앞서 (31c)에서와 같이 지속 시간 부사어의 수식이 제한되는 데 비해 다음 문장에서는 그 수식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31c)에서 목적어 ‘그 집’은 한정 명사구(definite NP)로서 특정한 집을 가리키기 때문에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를 목적어로 갖고 있는 (33)보다 훨씬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아래 (33)에서 ‘3년 동안’이 무엇을 수식하는

12) 영어에서도 동일한 수식 관계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장에서 지속 시간 부사구는 달성의 사건을 수식한다.

- (i) John ran home for an hour.
 (ii) My terminal died for two days.
 (iii) Mary left town for two weeks.

Pustejovsky(1995: 74)는 위의 예를 들어 지속시간 부사구가 중점(Head)이 할당된 하위 사건을 수식한다고 주장한다.

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3) 그 인부들은 삼 년 동안 집 열 채를 지었다.¹³⁾

즉 이 문장이 과연 ‘집을 짓기 시작해서 열 채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삼 년인지, 아니면 ‘삼 년이라는 시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구간 안에 지은 집들을 보니 열 채’라는 뜻인지 구별해야 한다. 실제로 (33)이 뜻하는 바는 후자에 가깝다.¹⁴⁾ 즉 ‘삼 년 동안’이라는 부사구는 ‘삼 년의 시구간에서 판단해보건대’라는 의미로서, 나머지 문장이 뜻하는 바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시구간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시간 부사어는 양태(modality)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동사가 서로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상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동사 ‘입다’는 (34a)에서와 같이 지속 시간 부사어와 함께 쓰일 때는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데 반해, (34b)에서 ‘재빨리’ 같은 양태 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옷을 입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입다’라는 동사는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이 부각되어 해석될 수도 있고,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이 부각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34) a. 근이는 하루종일 한복을 입었다.

13) ‘-고 있다’와 결합시켜서, ‘그 인부들은 삼 년 동안 집 열 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과정 사건의 지속(혹은 진행)으로 해석되지 않고, 특정 맥락에서 그 인부들이 지난 삼 년간 일한 ‘결과’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린다. ‘-고 있다’가 결합하여 이러한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 해석에 대해서는 4.4에 상술하였다.

14) 만일 전자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틀 부사어인 ‘삼 년 만에’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인부들은 삼 년 만에 집 두 채를 지었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집을 짓기 시작하여 두 채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삼년이라는 것이다. 시간틀 부사어의 의미는 다음 4.2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b. 근이는 재빨리 한복을 입었다.
- c. 철수가 서둘러 한복을 입었다.

이러한 다의적 해석은 (34c)가 중의적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34c)에서 '서둘러'는 한복을 입는 과정이 서둘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한복을 입은 결과 상태가 서둘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서둘러'가 입는 사건의 두 하위 사건을 각각 분리하여 수식한다.

'오르다'와 같은 동사들은 논항 교체를 보이면서 상적 의미가 달리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 부사어가 '오르다'의 두 구문에서 보이는 대조를 보면 쉽게 확인된다.

- (35) a. ??우리는 세 시간 동안 한라산에 올랐다.
- b. 우리는 세 시간 동안 한라산을 올랐다.

위에서 보건대, '오르다'가 착점(Goal) 논항 '한라산에'와 나타날 때는 완성의 사건을 가리키고,¹⁵⁾ 이 논항이 조사 '-을/를'을 취하면서 나타나면 오히려 행위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2) 시간틀 부사어와의 결합

흔히 영어의 *in an hour*와 같은 부사구를 시간틀 부사어(time frame adverbial)라고 부른다. 한국어에서는 '한 시간 만에' 혹은 '한 시간 동안에' 등의 표현에 대응한다. 시간틀 부사어는 특별히 완성의 사건을 변별해 내는데 유용하다. 다음은 시간틀 부사어의 수식에 따르는 제약을 보여 준다.

15) 이 구문에서는 시간틀 부사어의 수식이 자유롭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i) 우리는 세 시간만에 한라산에 올랐다.

- (36) a. *진이는 십 분만에 지겨웠다.
 b. (*)근이는 한 시간만에 컴퓨터 게임을 했다.
 c. 인부들은 두 달만에 그 집을 지었다.
 d. (*)나는 세 시간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시간틀 부사어는 (36a)에서와 같이 상태 술어를 수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틀 부사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를 보여 주는 구문이 (36c)와 같은 완성 동사 구문이다. ‘그 집을 짓다’는 완성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복합 사건에는 과정의 하위 사건과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두 달만에’는 바로 과정의 하위 사건 1의 지속 시간을 수식한다. 즉 ‘그 집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두 달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집을 짓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36b)와 (36d)에서는 시간틀 부사어가 술어를 수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우선 (36b)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는 단순한 행위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사건은 본래적으로 비종결성(atelic) 사건이다. 따라서 (36b)의 ‘한 시간만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건’의 지속 시간을 의미하거나 그 사건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서 문법성 판단을 (*)라고 한 것이 이러한 때문이다. 한편 이 문장이 실제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한 시간만에’가 발화 맥락에 의해 설정된 시구간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근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겨우 게임을 하게 된 경우라면, ‘한 시간만에’는 기다리기 시작해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구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수식되고 있는 시구간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술어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담화상에서 설정된 시구간이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의 시구간’ 중에 근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 해석은 (36c)에서 시간틀 부사어가 해석되는 방식과 분명히 대조되며, (36d)에서도 이러한 담화상의 의미 해석이 쉽게 드러난다. 즉 (36d)에서 ‘세 시간 만에’는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사건’의 내부 시간 구조와는 관계없이, 담화상에 설정된 시구간 — 예를 들면 홍콩에서

내가 탄 비행기가 이륙한 시각부터 인천공항에 착륙한 시각까지의 시구간 —을 수식한다. 또한 이 세 시간 동안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시간틀 부사구는 일정한 시구간을 수식하는데, 이 시구간이 담화상에 설정된 시구간일 수도 있고, 술어의 어휘적 의미에 의해 설정되는 시구간일 수도 있다. 이 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술어가 반드시 완성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시간틀 부사구는 이 완성 사건에서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이 지속된 시구간을 지시한다.

3) “-어 있다”와의 결합

한국어의 보조 동사 구문 ‘-어/아 있다’는 다음과 같이 선행 술어에 대한 제약이 있다.

- (37) a. *근이가 하루 종일 지루해 있다.
- b. *진이가 하루 종일 자 있다.
- c. *인부들이 집 두 채를 지어 있다.
- d. 연이가 아침 일찍 도착해 있다.
- e. 많은 등산객들이 관악산-에/-*을 올라 있다.

위에서 보듯이 ‘-어/아 있다’는 선행 술어가 달성 동사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어/아 있다’는 타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며, 특히 (37e)에서 보듯이 자동사라 하더라도 논항 가운데 하나가 ‘-을’ 조사를 취하면서 교체될 경우에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만다.¹⁶⁾ 이와 같이 볼 때, ‘-어/아 있다’는

16) 격교체에 의한 차이는 다음에서도 발견된다.

- (i) 장군이 적의 화살에 맞아 있다. (ii) *장군이 적의 화살을 맞아 있다.
- (iii) ?어머니가 젓이 아이에게 물려 있다. (iv) *어머니가 젓을 아이에게 물려 있다.

그 선행 술어가 달성 동사로서 복합 사건을 지시해야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으며, 그 의미는 복합 사건의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즉 위의 (37d)는 ‘연이가 도착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37e)는 ‘많은 등산객이 관악산에 올라 간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아 있다’는 다음 (38a-c)에서와 같이 일부 피동사와 ‘-어지다’, ‘-되다’ 류의 동사들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그러나 (38d)에서와 같이 모든 피동사가 ‘-어/아 있다’와 결합하지는 않는다.

- (38) a. 닫혀/열려/잡혀/걸려/감겨/깔려/잡겨/휘어/멈춰 있다 등
 b. 꺼져/깨져/낫추어져/늦어져/터져/채워져 있다 등
 c. 연구되/연행되/파괴되/수입되/기록되/완성되-어 있다
 d. *쫓겨/먹혀/읽혀/(엄마 젖이)빨려/(소리가)들려/(향기가)풍겨/(사진이)보여 있다 등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가? 그 원인은 피동사를 파생시키는 기본 동사의 의미 차이에 있다. 즉 (38a-b)에 나오는 피동사들은 모두 완성(accomplishment) 동사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즉 ‘닫다/열다/잡다/걸다/끄다/깨다/낫추다/늦다/채우다’ 등은 모두 예비 과정과 결과 상태를 포함하는 완성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38d)의 기본 동사들인 ‘쫓다/먹다/읽다/(엄마 젖을)빨다/(소리를)듣다/(향기를)풍기다/(사진을)보다’ 등은 모두 행위(activity)의 단순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들이다.¹⁷⁾ 따라서 서로 다른 상적 유형의 기본 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들이 서로 다른 의미 유형을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의 지적과 같이 착점의 논항에 ‘-을/를’이 첨부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 문장 (v)가 자연스럽게, 이 문장에서 착점 표시 ‘-에’가 생략되어도 (v)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역시 자연스럽게 들린다.

(v) 많은 등산객들이 관악산을 올라 있다.

17) 이와 관련하여 다음 4.6에서 김윤신(2001: 118)이 제안한 피동화의 조건을 논의할 것이다.

다. 그러면 이들 피동사들의 의미 유형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우선 ‘-어/아 있다’에 선행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달성(achievement)의 사건을 지시한다. 그런데 다음 예문은 선행 술어의 의미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요구한다.

(39) ??사무실의 모든 집기가 움직여 있다.

이 문장은 언뜻 듣기에 부자연스럽게 들리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내가 나갔다 돌아와 보니 사무실의 모든 집기가 움직여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집기를 옮겼거나, 다른 사람들이 집기를 옮기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위의 문장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즉 움직이는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이 부각된 상황에서는 (39)가 부자연스러우며, 이는 ‘-어/아 있다’의 선행 술어가 달성의 복합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위 사건들 가운데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 (e1)이 중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 (e2)가 중점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38a-c)와 (38d)는 사건 구조 상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38d)에서 ‘-어/아 있다’에 선행하는 술어들은 해당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다음 (40)에서 (A)는 (38a-c) 동사들의 사건 구조를, (B)는 (38d) 동사들의 사건 구조를 보여 준다.

- (40) A. 사건구조 =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상태
 중점 = e2
 시간제약 = < (선행)
- B. 사건구조 =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과정
 중점 = e1 + e2
 시간제약 = o (중첩)

(A)에서는 하위 사건2가 상태인 데 반해서, (B)에서는 하위 사건2가 과정이다. 그리고 사건 구조의 '시간 제약'에 관해서 보면 (A)에서는 사건1이 사건2에 선행하지만, (B)에서는 사건1과 사건2가 시간적으로 중첩한다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면, '달히다'의 사건 구조에서는 결과의 하위 사건이 상태, 즉 '달혀_있는_상태(e2, y)'로 표상되며, 달는 과정의 사건1이 결과 상태의 사건2에 완전히 선행한다. 이에 반해 '쫓기다'의 사건 구조에서는 결과의 하위 사건2가 상태가 아닌 '쫓기는_과정(e2, y)'으로 표상되며, 이 과정은 'x가_y를_쫓는_과정(e1, x, y)'의 사건1과 시간적으로 중첩된다. 이렇게 두 하위 사건이 중첩되는 복합 사건의 경우는 일단 두 하위 사건 모두 $[e1^* + e2^*]$ 에 중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¹⁸⁾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아 있다'에 선행하는 술어는 자동사이어야 하며, 그 의미는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을 포함하는 달성의 복합 사건이어야 하며, 두 하위 사건은 시간적으로 완전 선후행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아 있다'의 의미는 '선행 술어의 결과 상태 지속'을 의미한다.

18) (40.B)와 같은 사건 구조를 갖는 동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복적거리다, 진동하다, 붐비다, 득실거리다, 울리다, 출렁거리다, 반짝이다, 어른거리다, 타오르다 등. 이들은 본문의 논의된 바와 같이 '-어/아 있다' 구성이 부자연스럽다. 또한 두 하위 사건이 모두 상태이면서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는 술어(형용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득하다, 울창하다, 뻥뻥하다, 자욱하다 등. 이들은 앞서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논항 교체를 보인다.

- (i) 집안이 손님들로 복적거리다.
- (ii) 집안에 손님들이 복적거리다.
- (iii) 집안이 손님들로 가득하다.
- (iv) 집안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교체를 보이는 술어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남승호(2002)를 참조할 것.

4) “-고 있다”와의 결합

한국어의 소위 ‘진행형’ 혹은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술어의 의미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것은 영어의 BE V-ing 구문의 의미와 사뭇 다르다.

- (41) a. *근이는 하루 종일 지루하고 있다.
- b. 진이가 하루 종일 자고 있다.
- c. 인부들이 집 두 채를 짓고 있다.
- d. ??연이가 아침 일찍 도착하고 있다.

(41)에서 보건대, 기본적으로 ‘-고 있다’는 상태성 술어와 결합하지 못하며, ‘도착하다’와 같은 달성의 술어와 결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행위의 술어나 완성의 술어와는 자유롭게 결합한다. 따라서 ‘-고 있다’는 과정을 내포하는 사건과 결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달성의 사건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과정의(하위) 사건이 지속성(durative)을 가져야 한다. 즉, ‘-고 있다’는 행위 동사나 완성 동사와 결합하면서 과정의 지속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다음 문장들은 ‘-고 있다’의 또 다른 해석을 보여 준다.

- (42) a.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 b. 지하철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고 있다.
- c. 아이들이 설날에 색동옷을 입고 있다.

위의 예에서 ‘-고 있다’는 어떤 과정의 지속으로 해석되기보다, 상태의 지속으로 먼저 해석된다. 즉 (42a)는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운 상태’가 지속됨을,¹⁹⁾ (42b)는 ‘지하철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가 지속됨을, (42c)는 ‘아이들이 색동옷을 입은 결과의 상태’가 설날에 지속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고 있다’가 과정 지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상태’는 ‘지루하다’와 같은 단순 사건의 상태가 아니고 종결성을 갖는 복합 사건의 결과 상태를 말한다.²⁰⁾

김윤신(2004)는 ‘-고 있다’의 의미를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 구조를 상태나 과정으로 단순화 시키는 ‘사건 단순화 함수’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고 있다’가 결합하는 ‘심리 달성 동사’, ‘정도 달성 동사’, ‘재귀적 달성 동사’에 대해서 두 하위 사건의 중첩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고 있다’ 구문의 의미 해석을 변별적으로 기술한다.

- (43) a. 심리 달성 동사(알다, 잇다 등):
 중첩 우중점 사건 [e1(과정) ○ e2*(상태)]
 고_있다(e1 ○ e2*) = e2(상태)
- b. 정도 달성 동사(눅다, 식다 등):
 유순중첩 무중점 사건 [e1(과정) < ○ e2(상태)]
 고_있다(e1 < e2) = e1(과정)
- c. 재귀적 달성 동사(입다, 엮다 등):
 유순 무중점 사건 [e1(과정) < ○ e2(상태)]
 고_있다(e1 < e2) = e1(과정)/e2(상태)

19) (42a)가 과정의 지속으로 해석되기는 아주 어렵다. 즉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다음 문장에서 ‘두 시간 동안’이 과정의 지속 시간을 가리키기 보다는 결과 상태의 지속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i) 손님들이 두 시간 동안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ii) 손님들이 식당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가득’을 뺀 (ii)는 결과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되기 보다 채우는 과정의 지속으로 더 쉽게 해석된다. 즉 ‘가득’ 혹은 ‘반쯤’과 같은 정량화된 정도 표현이 나타나면서 상적 의미가 달라진다.

20) 이미 장석진(1973)에서 이러한 중의성을 ‘진행’과 ‘결과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김윤신(2004)는 (43b)의 정도 달성 동사가 두 하위 사건이 중첩되는 복합사건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이 중첩 관계를 ‘원인-결과의 연쇄’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결과의 하위 사건이 변화의 과정이 아니고 상태라면 최소 단위의 ‘원인-결과’ 구조에서 결과 상태가 원인 사건과 어떻게 중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정도 달성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이 다수의 ‘원인+상태변화’의 연쇄로 보려고 할 때, 이러한 연쇄를 사건 구조에서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이다.

본고는 ‘녹다’와 같은 소위 “정도 달성 동사”를 기본적으로 완성 동사로 분류한다. 다만 김윤신 (2004)와 같이, 완성의 복합사건에서 중점이 명세되지 않은 무중점의 사건이다. 다음 (44a)에서 시간틀 부사구 ‘한 시간 만에’는 전형적인 완성 사건의 과정 지속 시구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수식 관계는 4.2에서 보았듯이 시간틀 부사구가 달성 사건을 수식할 때와 전혀 다르다. 즉, 시간틀 부사구가 ‘도착하다’와 같은 달성 동사를 수식할 때는 그 사건의 내부 구조와는 관계없이 문맥에서 주어진 시구간을 가리킬 뿐이다.

- (44) a. 얼음이 한 시간만에 녹았다.
- b. 얼음이 한 시간동안 녹았다.
- c.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 [사건 반복이 아닌 상태변화 지속]
- d. 얼음이 (거의/완전히) 녹아 있다.

그리고 (44b)에서 보듯이 지속 시간 부사구가 ‘녹다’와 자유롭게 결합하면서 ‘녹는 과정 사건’의 시구간을 가리킨다. 그런데 시간 부사구가 ‘녹다’를 수식하는 관계는 ‘짓다’와 같은 전형적인 완성 동사를 수식할 때와 차이를 보인다. 앞서 4.1에서 아래 (31c)의 예문을 들어 지속 시간 부사구가 완성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였다.

- (31) c. ??인부들은 두 달 동안 그 집을 지었다.

그러나 (31c)와 (44b)의 차이는 완성과 달성의 차이가 아니라, 두 동사가 담고 있는 완성 사건의 변화 정도에 대한 정보가 다를 뿐이다. 즉 ‘짓다’는 전형적인 완성 동사로서 ‘없던 집이 새롭게 생겨나는 산출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러한 산출 사건은 암시적인 증량적 대상(incremental theme)을 내포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짓다’라는 동사가 뜻하는 변화의 본질이 암시적 대상의 증량적 변화라기 보다, 대상이 없다가 있게 되는 극성 변화(polaric change)라는 것이다. 즉 ‘집을 짓는 과정 사건’에서 ‘집’이라는 대상 논항의 지시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변화의 정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²¹⁾ 그런데 ‘눅다’나 ‘식다’와 같은 정도 변화 동사들은 본래적으로 ‘변화’의 정도를 언제나 내포하고 있으며,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맥락에 따라 특정한 변화의 정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얼음이 녹은 정도’나 ‘죽이 식은 정도’는 어휘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²²⁾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지속 시간 부사어가 ‘눅다’의 사건을 수식할 수 있다. 즉, (44b)에서 ‘눅다’의 사건은 대상의 특정한 변화 정도가 언제나 설정되고 그 정도만큼 변화가 일어난 과정의 시구간을 지속 시간 부사어가 지시한다.

(44c) 역시 ‘얼음이 녹는 사건’이 과정을 내포하는 사건임을 보여 준다. 다

21) 여기에서 “암시적 대상(theme)”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집을 짓다’에서 ‘집’의 지시체가 짓는 사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과정의 하위 사건에서는 지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사건의 진행과 함께 점차 형성되어 가는 증량적 대상이긴 하나 과정의 시구간에서는 암시적 존재일 뿐이다. ‘눅다’와 ‘짓다’의 의미가 담고 있는 변화의 유형 차이는 Pustejovsky (1995:186)가 직접 사동(direct causation)과 간접 사동(indirect/indirect causation)의 차이를 논항들이 사건 구조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분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눅다/눅이다’의 경우는 원인의 과정 사건과 결과 사건에서 모두 변화를 겪는 대상이 참여하지만, ‘짓다’의 경우 ‘집’과 같은 증량적 대상이 결과 사건에만 관여하고, 원인의 과정 사건과는 ‘구성물’ 혹은 ‘재료’라는 논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22) 김현주, 이정민(2000)은 이 변화의 정도가 ‘완전한 상태 변화’일 때를 당연값으로 표상하고 있다.

음 4.5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계속(해서)’와 같은 부사어는 달성 동사를 수식할 때는 사건의 반복을 의미하고, 완성 동사를 수식할 때는 과정의 하위사건이 끊임없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44c)의 ‘계속’은 녹는 사건의 반복을 의미하지 않고 녹는 사건의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녹다’가 달성 동사라기보다는 완성 동사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문제는 (44d)에서 ‘-어 있다’가 ‘녹다’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앞서 4.3에서 보았듯이 ‘-어 있다’는 완성 동사와 결합하지 않고 달성 동사와만 결합한다. 본고는 (44d)와 같이 완성의 사건을 지시하는 자동사가 ‘-어 있다’와 결합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형전환 연산(type shifting operation)을 이용한다. 즉 ‘녹다’는 본래 완성의 사건을 지시하지만, ‘-어 있다’는 완성의 사건을 달성의 사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어 있다’는 본래적으로 결과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므로, ‘녹다’와 같은 정도 완성 동사들과 결합할 때는 완전한 정도 변화에 뒤따르는 결과 상태를 부각시키게 된다. ‘-어 있다’의 이러한 의미해석은 무중점의 정도 완성 사건을 결과 상태의 하위사건에 중점을 갖는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 있다’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전환 연산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전환 연산은 Rothstein(2004)이 달성 동사의 진행 구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제안한 바 있다. Rothstein에 따르면, 아래 (45)에서 영어의 진행형 *BE -ing*가 *arrive*와 결합하면서 달성의 사건을 완성의 사건(*derived accomplishment*)으로 전환시켜 해석한다는 것이다. 즉 진행 구문은 (45)에서와 같이 달성의 사건 ($e1 < e2^*$)을 완성의 사건 ($e1^* < e2^*$)으로 변환시킨다.²³⁾

23)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의 지적과 같이 한국어에서도 달성동사들이 ‘-고 있다’와 결합하므로, Rothstein이 제안한 사건유형 전환 연산이 한국어에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어의 ‘-고 있다’와 영어의 *BE -ing* 구문이 서로 다른 의미적 특성을 보이므로 한국어의 ‘완성동사+고 있다’에 대한 설명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 ?기차가 도착하고/떠나고 있다.

(45) a. The tram is arriving at the tram stop.

b. We are reaching the mountain top

(46) **고_있다**(DA($e1 < e2^*$)) = **고_있다**($e1^* < e2^*$)

(46)에서 DA(derived accomplishment)는 달성의 사건을 완성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연산자(operator)이며, 이 연산자에 의해 도출된 완성의 사건 ($e1^* < e2^*$)이 ‘**고_있다**’와 결합하면서 과정 지속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제 앞서(43a)에 예시한 소위 “심리 달성 동사”인 ‘알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김윤신(2004)는 이 동사가 중첩의 복합 사건을 지시한다고 하였지만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김윤신 (2004: 56-57)에서 심리 달성 동사가 변화를 함의하며, “그 변화가 경험주인 주어의 내부에 일어나는 재귀적인 변화이므로 인식과정과 동시에 인식의 상태가 도입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하여 “두 개의 하위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식의 사건에 ‘알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동사 ‘알다’의 어휘적 의미에서 이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이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과 중첩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알다’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완성 동사인 ‘깨닫다’와 비교해 보면, ‘알다’는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는 전형적인 달성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알다’가 ‘-고 있다’와 함께 결과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알다’가 (43a)에서와 같이 중첩의 복합사건을 뜻한다기보다는 전형적인 유순 우중점 사건 ($e1 < e2^*$)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설명은 ‘알다’가 일종의 재귀적 사건을 가리킨다는 김윤신(2004)의 기술과도 상통한다.

재귀적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들에는 위의 (43c)에 제시된 소위 “재귀적 달성동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동사들이 포함된다. 김윤신(2004)에서 제시된 ‘입다, 엮다, 타다’와 같은 본래적 재귀 동사 뿐만 아니라, ‘붙이다, 걸다, 매다, 칠하다, 덮다’ 등과 같은 상황적 재귀 동사들도 ‘-고 있다’와 결합하면서 ‘과정 지속’과 ‘결과 상태 지속’의 중의성을 보인다. 본래적 재귀 동사의 중의성에 대해서는 남승호(2000)에서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적 재귀 동사가 ‘-고 있다’와 결합하는 구문들을 간단히 살펴 보자.

- (47) a. 근이가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b. 진이가 길다란 속눈썹을 붙이고 있다.
 (48) a. 근이가 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b. 진이가 손톱에 파란색 메니큐어를 칠하고 있다.

위에서 (47a)와 (48a)는 재귀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지만, (47b)와 (48b)는 모두 사건의 결과가 행위주에게 영향을 입히는 재귀적 해석을 가져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a) 문장들은 ‘과정 지속’의 의미만을 갖지만, (b) 문장들은 ‘과정 지속’ 뿐만 아니라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도 상황적으로 허용한다. 이러한 차이를 볼 때 ‘-고 있다’가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는 구문은 모두 재귀적 해석을 허용할 때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즉 ‘알다, 잇다’와 같은 인식 달성 동사가 ‘-고 있다’와 함께 결과상태 지속을 의미하며, ‘입다, 엮다, 차다, 신다, 타다, 벗다’와 같은 본래적 재귀 동사, ‘붙이다, 칠하다, 걸다, 매다, 덮다’와 같은 상황적 재귀 동사 모두 ‘-고 있다’와 결합하여 중의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재귀적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재귀적 사건’이 ‘-고 있다’와 함께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게 되는가? 본고에서는 그 원인이 재귀 동사의 사건구조에 있다고 본다. 즉 재귀 동사는 모두 [과정 + 상태]라는 두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을 가리키는데,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이 언제나 중점을 받게 되면서 ‘-고 있다’와 함께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다’는 본래적 재귀 동사로서 두 하위 사건 모두에 중점을 할당하는 사건 구조 ($e1^* < e2^*$)를 가지며, ‘칠하다’는 상황적 재귀 동사로서 어떤 구문으로 실현되든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에는 언제나 중점이 할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승호(2003)은 ‘칠하다’의 논항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칠하다’의 사건 구조에서 중점을 [HEAD = (e1)e2]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4.3에서 ‘-어/아 있다’가 달성의 자동사와 결합하면서 ‘결

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데 반해, '-고 있다'는 달성과 완성의 타동사와 결합하면서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5) “계속(해서)”와의 결합

부사어 “계속(해서)”는 수식하는 술어의 상적의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 (49) a. 근이는 영화를 보는 동안 계속 지루했다.
- b. 진이는 계속 자고 있다.
- c. 김 목수는 계속 그 집을 지었다.
- d. *연이가 계속 도착했다.
- e. 선수들이 계속 도착했다.

(49a)와 (49b)처럼 단순 사건의 경우에 “계속”은 상태와 과정의 지속을 의미한다. 즉 (49b)는 ‘진이가 자는 과정이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계속’이 완성의 사건을 수식하는 (49c)에서는 과정의 하위 사건이 쉼없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속’은 복합 사건의 결과 상태가 쉼없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이 (49d)와 같은 달성의 사건을 수식할 수는 없다. (49d)는 단수의 사건으로만 해석된다. 즉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단수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경우에 달성의 사건은 ‘계속’으로 수식할 수 없다. 그러나 (49e)에서 보듯이 달성의 사건도 복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의 수식을 받으며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된다. (49e)는 하나의 도착하는 사건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각자 혹은 여럿이 도착하는 사건이 거듭 반복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다음과 같이 주어나 목적어가 단수 명사구이면서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아래 (50a)에서는 ‘근이가 차를 멈추는 사건’이 거듭 반복되었음을 뜻하며, (50b)는 자동사구문으로서 ‘차가 멈추는 사건’이 거듭 반복되었음을 뜻한다. 차를 멈추는 사건과 차가 멈추는 사건은 모두 순간성을 갖는 것으로서 달성의

사건이며, 앞서 4.1에서 보았듯이 ‘한 시간 동안’ 과 같은 지속 부사어가 수식할 때에는 과정의 지속 시간으로 해석되지 않고, 결과 상태의 지속 시간으로 해석된다.

- (50) a. 근이는 운전을 하면서 차를 계속 멈추었다.
- b. 집까지 가는 동안 차가 계속 멈추었다.

그러면 과연 사건의 반복이라는 의미는 ‘계속’ 이 달성의 사건을 수식할 때만 가능한가? 다음의 예에서는 ‘계속’ 이 완성의 사건을 수식하는데, 여기에서도 반복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51) a. 현대건설은 계속 아파트를 지었다.
- b. 근이는 지난 삼년간 계속 편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 c. 진이는 올 들어 계속 엄마하고 잔다.

(51a)의 ‘아파트를 짓는 사건’ 은 완성의 사건이며, (51b)의 ‘편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건’ 은 상태의 사건이며, (51c)의 ‘엄마하고 자는 사건’ 은 행위의 사건인데, 모두 개체화되어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계속’ 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달성의 사건과 달리 완성의 사건은 ‘계속’ 의 수식을 받을 때, 과정의 하위 사건이 쉽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피동동사 형성 여부: 완성 동사

김윤신(2001: 118)에서는 접사에 의한 피동화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52) (i) 반드시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능동 동사만이 피동화가 가능하다.
- (ii) 형상역과 작인역에서 대상 논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만

접사에 의한 피동화가 가능하다. 즉 영향을 받는 대상 논항이 결과 상태에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앞서 4.3에서 보았듯이 ‘쫓다/먹다/읽다/(엄마 젖을)빨다/(소리를)듣다/(향기를)퐁기다/(사진을)보다’ 등은 모두 행위(activity)의 단순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들이지만 접사에 의한 피동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52)의 조건이 모든 피동동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의 조건은 일부 논항 교체 구문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설득력있는 근거를 가져다 준다. 앞서 3절과 4.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쌓다’는 논항 교체를 허용하면서 두 가지 구문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두 구문은 피동문 형성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 (53) a. 책상 위에 책을 쌓았다.
 b. 책상 위에 책이 쌓였다.
- (54) a. 공원에 탑을 쌓았다.
 b. *공원에 탑이 우뚝 쌓였다.
- (55) a. 종이를 접었다. — 종이 접혔다.
 b. 비행기를 접었다. — ??비행기가 접혔다.
- (56) a. 생나무를 깎았다. — 생나무가 깎였다.
 b. 도장을 깎았다. — ??도장이 깎였다.

이런 차이는 ‘쌓다’의 사건 구조가 두 가지로 표상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53)과 같이 처소 이동의 사건으로 해석될 때는 피동화가 가능한데, (54)와 같이 산출의 복합 사건으로 해석될 때는 (52-ii)에 제시한 김윤신의 피동화 제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본래 (52-ii)는 김윤신(2001)에서 ‘짓다’와 같은 소위 “창조 동사”(본 논문에서는 산출 동사라 하였음)가 피동화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짓는 사건’에 의해 생겨나는 대상은 짓는 과정에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작인역’에서 기술되는 하위 사건(과정)에는 드러날 수 없고 ‘형상역’에서 기술되는 하위 사건(결과 상태)에서만 드러난다. 그러므로 ‘짓다’는 위의 조건 (52-ii)를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피동화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²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산출 동사 ‘짓다’는 아예 피동화가 되지 않지만, (53-56)에서 보듯이 동일한 동사가 서로 다른 구문에 쓰이면서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각 쓰임에 따라 피동화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53)과 (55a)와 (56a)의 능동문은 모두 상태/형태 변화 사건을 가리키고, 그 대상 논항(책, 종이, 생나무)이 형상역(결과상태)과 작인역(원인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피동화가 허용된다. 하지만, (54)와 (55b), (56b)의 능동문은 모두 대상 논항인 인공물을 산출하는 사건이므로, 이 대상 논항이 작인역(원인과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54)와 (55b), (56b) 구문의 의미 구조는 피동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7) 정리

이제까지 술어의 상적 특성을 보여 주는 여섯 가지 구문을 살펴 보았다. 4.1-4.6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지속 부사어는 단순 사건(상태 [e1(S)]나 과정 [e1(P)])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나가다, 멈추다’와 같은 일부 달성동사와 결합하여 결과 상태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지속 부사어는 완성 동사 등을 수식하면서 양태적 의미로도 해석된다.

24) 한 심사자께서 “터널이 훤히 뚫렸다”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52-ii)의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뚫다’는 ‘쌓다, 접다, 깎다’와 다른 논항구조를 갖는다. 즉 다음의 대비에서 확인되듯이, ‘뚫다’는 재료-논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 (i) 돌로 담을 쌓았다/종이로 비행기를 접었다/나무로 도장을 깎았다.
- (ii) *산으로/*바위로 터널을 뚫었다.

(ii) 시간틀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완성의 사건 $[e1*(P) < e2(S)]$ 을 수식하며 예비 과정 사건 $[e1*(P)]$ 의 지속시간을 드러낸다. 다른 유형의 동사와 결합할 때는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유형과 관계없이 맥락에서 설정된 시구간을 가리키기도 있다.

(iii) ‘-어 있다’는 달성 사건 $[e1(P) < e2*(S)]$ 을 가리키는 자동사와 결합하면서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며, 달성 사건의 하위 사건들 사이에 시간적 선후행 관계를 요구한다.

(iv) ‘-고 있다’는 행위 $[e1(P)]$ 나 완성 사건 $[e1*(P) < e2(S)]$ 을 수식하면 과정 $[e1(P)]$ 의 지속시간을, 달성의 타동사 $[e1(P) < e2*(S)]$ 와 결합하면 결과상태 $[e2*(S)]$ 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v) 부사 ‘계속(해서)’는 상태나 과정의 단순 사건을 수식할 때는 그 사건의 지속을 나타내고, 완성의 사건 $[e1*(P) < e2(S)]$ 에 대해서는 예비 과정의 지속시간을, 그리고 달성 동사를 수식할 때는 전체 사건의 반복 해석을 가져 온다.

(vi) 마지막으로 술어가 접사에 의해 피동동사를 파생하는 데는 기본동사의 사건구조와 특질구조상의 제약이 있다. 이는 완성 동사 $[e1*(P) < e2(S)]$ 가 피동화 될 때는 두 하위 사건에 공히 간여하는 논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소위 “정도 달성 동사”를 중점 미명세의 완성 동사 $[e1(P) < e2(S)]$ 로 분석하였으며, 달성 동사 가운데 본래적인 재귀 동사는 두 하위 사건에 모두 중점이 할당되고, 상황적 재귀 동사는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에만 중점이 할당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 결론

이 논문은 한국어 술어의 의미 유형을 나누기 위해, 어휘 술어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을 수정, 확대하였다. 술어의 의미를 형식화된 틀에 기반하여 기술하고자, 술어의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를 유형화하였고, 이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술어의 다양한 논항 교체 현상을 검토하여, 통사 구조상의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를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술어의 상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 구조에 표상되는데, 한국어의 상적 의미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기존 이론에서 제안된 사건 구조를 더욱 자세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즉 복합사건에 중점(Head)을 명세하거나 미명세하는 방식을 확대하였다. 또한 하위 사건들 간의 시간 관계도 상적 의미 해석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어 술어의 상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구문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구문은 각각 특징적인 상적 의미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한국어 술어의 유형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한국어 술어의 전형적인 의미 유형은 거의 다루어졌으며 여기에 제안된 의미 분석과 의미 표상 방식은 다른 부류의 술어와 논항 교체 술어의 의미 기술을 위해 충분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술어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의 대응과 관련해서 다루었다. 그러나 문장의 통사 구조에 해당 술어의 사건 구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윤신 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윤신 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 김현주, 남승호, 이정민 1999. 'Korean Creation Verbs and Lexical-Semantic Structure'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남승호 2000. '한국어 이동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 남승호 2002. '최소논항 교체의 의미론: 자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제38권 제1호: 295-35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남승호 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 구조와 논항 교체' <어학연구> 제39권 제1호: 111-14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양정석 1995.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우형식 1990. <국어 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 이정민 2000. '상태변화 및 창조동사의 의미구조(논항 및 상)'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1999. '한국어 술어 중심의 어휘부 의미구조 연구(A Lexical Semantic Study of Predicates in Korean),'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연구과제 보고서. 과학기술부.
- 장석진. 1973. '시상의 양상' <어학연구> 제9권 제2호: 58-7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국어학 연구총서 9. 서울: 탑출판사.
- 홍재성 1987a. '교차 장소보어구문에 대하여'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 홍재성 외. 1997.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 Alsina, Alex 1999. "On the Representation of Event Structure," in T. Mohanan & L. Wee (eds.) *Grammatical Semantics: Evidence for Structure in Meaning*. CSLI Publication. Stanford, California.
- Bach, E. 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16.
- Carter, R. J. 1976. Some Linking Regularities. B. Levin and C. Tenny (eds.) *On Linking: Papers by Richard Carter*.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25, MIT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 Chierchia, Gennaro 1989. "A Semantics for Unaccusatives and its Syntactic Consequences." Ms. Cornell University.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Kluwer.
- Ernst, Thomas 2000. 'Manners and Events,' in Tenny and Pustejovsky (eds.) (2000): 335-358.
- Filip, Hana 1999. *Aspect, Eventuality Types and Nominal Reference*. A Garland Series of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 Guerssell et al 1985. "A Cross-linguistic Study of Transitivity Alternations," *CLS* 21, Part 2, Chicago.
- Hale, K. & S. J. Keyser 1986. "Some Transitivity Alternations in English,"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7. CCS, MIT.
- Hale, K. & S. J.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s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e, K. & S. J. Keyser 2002. *Prolegomenon to a Theory of Argument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MIT Press.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 Jackendoff, R. 1983. *Semantics and Cognition*. MIT Press. Cambridge.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 Katz, G. 2000. "Anti Neo-Davidsonianism: Against a Davidsonian Semantics for State Sentences," in Tenny and Pustejovsky (eds.) (2000): 393-416.
- Krifka, M. 1987.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Towards a Semantics of Quantity," 6th Amsterdam Colloquium.

- Krifka, M.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I. Sag & 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Stanford: CSLI.
- Landman, Fred 1992. "The Progressiv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1-32.
- Landman, Fred 2000. *Events and Plurality: The Jerusalem Lectures*. Dordrecht: Kluwer.
-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J. Bos and P. Buitelaar eds. *Lexical Semantics in Context*.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 and Tova Rapoport. 1988. "Lexical Subordination," in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 Levin, Beth and Malka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IT Press.
- Levin, Beth and Malka Rappaport Hovav. 1996. "Lexical Semantics and Syntactic Structure,"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 McCawley, James 1968.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4.
- Parsons, Terence.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The MIT Press.
- Perlmutter, 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4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57-189. BLS. Berkely: Univ. of California.
- Pustejovsky, J.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47-81.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Cambridge.

- Tenny, C. 1989. "The Aspectual Interface Hypothesis," in I. Sag & 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Stanford: CSLI.
- Tenny, Carol L.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enny, Carol 2000 "Core Events and Adverbial Modification," in Tenny and Pustejovsky (eds.) (2000): 285-334.
- Tenny, C. and J. Pustejovsky (eds.) 2000.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Stanford: CSLI.
- Tenny, C. and J. Pustejovsky. 2000. "A History of Events in Linguistic Theory". in Tenny and Pustejovsky (eds.) (2000): 3-37.
- Travis, Lisa 2000. 'Event Structure in Syntax,' in Tenny and Pustejovsky (eds.) (2000): 145-186.
- van Hout, Angeliek. 1998. *Event Semantics of Verb Frame Alternations: A Case Study of Dutch and Its Acquisition*. Garland Publishing, Inc.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ABSTRACT

Event Structure and Aspectual Character of Korean Predicates

Seungho Nam

This paper, extending the previous formal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has proposed a semantic typology of predicates in Korean. The paper classified the predicates in terms of event structure and argument structure, which are represented in a formal semantic structure. It is claimed that the relation between event structure and argument structure plays a crucial role in argument realization at syntactic level. Diverse classes of argument alternation have been analysed in terms of event structure.

The paper identifies more fine-grained aspectual characters of predicates, and represents them in their event structure. The paper shows that complex events may assign Head to both subevents and further it claims that there are at least seven ways to interpret Headedness of complex events. Aspectual meanings are identified in six constructions including durative/frame adverbials, aspectual adverbs, morphological passives, and progressive/dur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The proposal based on event structure is ready to be applied to various argument alternation classes in natural languages as well as Korean. This paper reveals that there should be a natural principle mapping lexical syntax to semantics,

and vice versa. Therefore, more interesting mapping principles governing the interface will be discovered in between syntax and semantics of lexical predicates.